

韓國의 犯罪空間

崔 雲 植*
裴 美 愛**

《차 례》

- | | |
|----------------|-------------|
| 1. 序 論 | 4. 都市化와 犯罪 |
| 2. 犯罪地理學의 研究傾向 | 5. 社會環境과 犯罪 |
| 3. 人口規模와 犯罪 | 6. 結 論 |

1. 序 論

우리 나라는 1962년에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으로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産業構造가 變化하였다. 또 생활조건이 향상되고 개인의 행동 양식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變化는 인간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켰는데 특히 윤리의식이 배제된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적 사고를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犯罪의 증가라 할 수 있다.

犯罪行爲의 주체는 人間 개개인이고, 개인의 범죄행위는 다른 어느 要因보다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요인의 차이는 범죄행위의 지역적인 차이를 유발한다.

本 研究에서는 犯罪學의 주요 연구과제의 하나인 犯罪의 立地(location), 영역(territory)¹⁾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 패턴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요인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分析하고자 한다. 사회환경을 구성하는 인자로 人口, 都市化, 그리고 거주환경을 추출하였는데 거주환경에는 經濟, 文化的 特性이 포함되어있다. 인구나 범죄와의 관계는 인구규모에 따른 범죄 유형을, 그리고 도시화와 범죄와의 관계는 도시화의 진행에 따

른 범죄 발생을 통계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환경과 범죄는 要因分析(factor analysis)하였다.

研究對象地域은 우리나라 全地域으로 하고 경찰지청 관할지역을 기준으로(1984年 現在) 전국을 45개 地域圈으로 나누었다(그림 1). 그리고 범죄 통계는 내무부, 법무부 등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犯罪現象에 대해서 주로 犯罪原因, 犯罪추세, 犯罪대책 등을 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연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地域環境開發政策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범죄의 地理的 現象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의 지리적 현상을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本研究에 의의가 있다.

2. 犯罪地理學의 研究傾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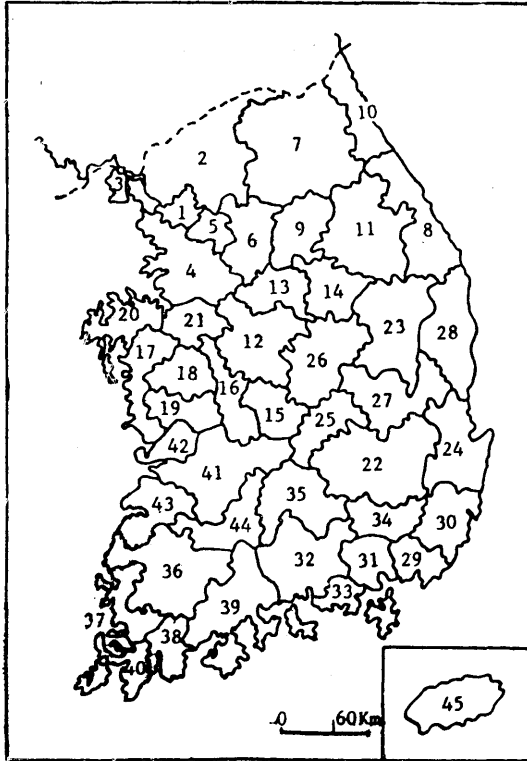
犯罪地理學의 근본을 이루는 犯罪學은 종합학문 분야로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종래 범죄학은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범죄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 즉 신고된 범죄자의 개별 특성을 심리학 및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일반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1970年 以後 신범죄학파가 대두되었는데 이들은 實證主義的 思考를 비판하고 犯罪의

*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社會生活科 教授

** 釜山女子專門大學 講師

1) Herbert, D.T., 1985, "Environment criminology: testing some area hypothese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10, no. 3, pp.15~45.



- | | | | |
|---------|---------|---------|---------|
| 1. 서울권 | 2. 의정부권 | 3. 인천권 | 4. 수원권 |
| 5. 성남권 | 6. 여주권 | 7. 춘천권 | 8. 강릉권 |
| 9. 원주권 | 10. 속초권 | 11. 영월권 | 12. 청주권 |
| 13. 충주권 | 14. 제천권 | 15. 영동권 | 16. 대전권 |
| 17. 홍성권 | 18. 공주권 | 19. 강경권 | 20. 서산권 |
| 21. 천안권 | 22. 대구권 | 23. 안동권 | 24. 경주권 |
| 25. 김천권 | 26. 상주권 | 27. 의성권 | 28. 영덕권 |
| 29. 부산권 | 30. 울산권 | 31. 마산권 | 32. 진주권 |
| 33. 충무권 | 34. 밀양권 | 35. 거창권 | 36. 광주권 |
| 37. 목포권 | 38. 장흥권 | 39. 순천권 | 40. 해남권 |
| 41. 전주권 | 42. 군산권 | 43. 경주권 | 44. 남원권 |
| 45. 제주권 | | | |

그림 1. 연구지역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사회정의(social justice), 형법(criminal law), 사법제도(judicial system)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범죄학파들은 범죄학이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사고를 일반화하려 하였

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犯罪를 空間에 연관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²⁾ 犯罪分布의 地理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성을 밝히고자 하였다.³⁾ 특히 지역의 구조적 패턴, 거주지 분화, 도시 성장의 거시적 과정 등에 관심을 가졌으나 뒤이어 출현한 행동과학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에 흡수되었다.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에서는 범죄 및 비행연구에서 정신병리(mental illness), 박탈감(deprivation)과 같은 주제를 거주지 연구에 연관된 사회문제로 취급하였다.

특히 범죄 및 비행과 같은 주제는 현실적이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문제로 인식되었다.⁴⁾

犯罪地理學이 범죄를 지역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은 19세기 초 지도학과(cartographic school)에서 비롯되었다. 지도학과를 대표하는 학자는 프랑스의 Guerry로 그는 범죄율의 지역적 분포를 발표한 최초의 범죄지리학자이다. 지도학과에서는 범죄 발생의 지역적인 다양성과 범죄연구의 설명적 이론(explanatory theories)의 기초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은 都市化와 범죄에 관한 이론으로서 중심과제는 도시의 인구증가가 범죄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⁵⁾ 한편 범죄의 空間的 特性(spatial quality)을 보다 상세히 분석한 것은 도시내부(intra-urban scale)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19C 中期 Mayhew의 런던연구에서 시작되어 20C 초에 완성되었다. 本研究은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범죄의 지역적 분포 특성으로서 범죄 발생이 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고, 둘째, 범죄의 생태적인 특성(ecological aspects)으로서 범죄 분포가 도시 환경과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범죄의 생태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의 생태 개념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社會生態概念⁶⁾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범죄의 생태적인 접근에서는 사회환경과 범죄와의 관계

2) Herbert, D.T., 1977, "Crime and delinquency and the urban environ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1, p.209.

3) Harries, K.D. 1971, "The geography of American crime," *Journal of Geography*, vol. 70, p.213.

4) Herbert, D.T., 1977, *op. cit.*, p. 209.

5) *Ibid.*, p. 210.

6) Park R.는 생물학적 ecology의 용어와 비교하여 인간 사회에 적용된 ecology를 human & social ecology라고 명하고, 이 연구의 목적은 "생물학적 균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균형도 共生(symbiosis), 競爭(com-

를 강조하고 범죄의 지역적 분포 상태를 통하여 지역사회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범죄연구의 생태적 접근을 대표하는 학자로 C. Shaw와 H. McKay 등이 있는데 이들은 범죄와 비행의 발생 원인이 개체의 소질보다는 거주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⁷⁾

최근에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 criminology)의 연구가 활발한데 환경범죄학에서는 범죄와 환경요인에서 입지(location), 영역(territory)에 중점을 두고 범죄는 지역환경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자 자체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場所에 관심을 가진다.⁸⁾ 다시 말해서 범죄에 대한 기회(opportunity for crime)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에 역점을 둔다.⁹⁾ 환경범죄학의 연구는 Herbert를 중심으로 영국 지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범죄지리학에서는 주로 범죄자의 거주지 분포유형(criminal's residential pattern), 범죄자의 인지(perception), 행태(behaviors), 위법이 행해지는 장소의 취약환경(vulnerable environment), 犯罪行爲에 따른 희생(victim)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⁰⁾

3. 人口 規模와 犯罪

범죄 발생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교육정도, 문화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환경, 인구, 공업화, 소득과 같은 경제환경, 이외에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地域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간 범죄발생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인구의 過多는 범죄 발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人口密度가 높은 지역

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낮다.¹¹⁾

범죄 통계나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면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인구가 적은 농촌보다 범죄율이 높다. 그리고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범죄율이 높으며, 또한 도시 내부는 도시 외곽보다 범죄율이 높다.

우리 나라의 범죄 발생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과 같이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권은 범죄율이 2.2147를 기록할 정도로 범죄율이 높으나 인구규모가 적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범죄율은 1.348~1.465로 범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표 1).

또한 大都市와 農村小都市와의 범죄 발생 구성비를 보면 대도시권의 범죄발생 빈도 수는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위도시 및 소도시의 경우는 20% 미만을 차지하고 인구 5만 이하의 농촌지방은 전체 범죄 발생 빈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율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등 대도시권 이외에 제주, 원주 등이었다. 이밖에 대도시 주변지역인 부천, 성남, 마산, 울산, 진주 등이 비교적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다(그림 2). 반면 강원도 산간지역과 內陸의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낮은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범죄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농촌보다 도시가 犯行에 대한 기회(opportunity for crime)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에는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농촌보다 범행 동기가 높고 복잡한 도로망과 건축물로 인해 도주와 범행 은폐가 용이하며, 住民의 異質성과 잦은 人口移動으로 근린관계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petition), 침입(invasion), 계승(succession) 등의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과 사회제도의 지역적인 집중 분산 패턴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Neymeyer, M.H., 1968, *Juvenile Delinquency in Modern Society*, Van Nostrand Co., pp.269~270.

Bersani, C.A., 1970, *Crime and Delinquency: A Reader*, Memtlem, p.117.

7) Morris, T., 1977, *The Criminal Area*, Ract ledge & Kegan Paul, p.7.

8) Herbert, D.T. 1985, *op. cit.*, p.274.

9) *Ibid.*, p.273.

10) Smith, S.J., 1984, "Crime and structure of social relation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9, p.427.

11) 李璋鉉, 1975,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범죄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10집, p.151.

표 1. 인구규모와 범죄율

인구규모	권역명	범죄율*
100만이상	서울권, 의정부권, 인천권, 수원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순천권	2.2147
50만~100만	강릉권, 청주권, 홍성권, 경주권, 울산권, 마산권, 진주권, 전주권, 군산권	1.8703
30만~50만	성남권, 여주권, 춘천권, 영월권, 충주권, 강경권, 서산권, 천안권, 안동권, 김천권, 상주권, 충무권, 거창권, 목포권, 해남권, 정주권, 제주권	1.4656
10만~30만	원주권, 속초권, 제천권, 영동권, 공주권, 의성권, 영덕권, 밀양권, 장흥권, 남원권	1.3489

* 범죄율 = $\frac{\text{범죄발생건수}}{\text{인구수}} \times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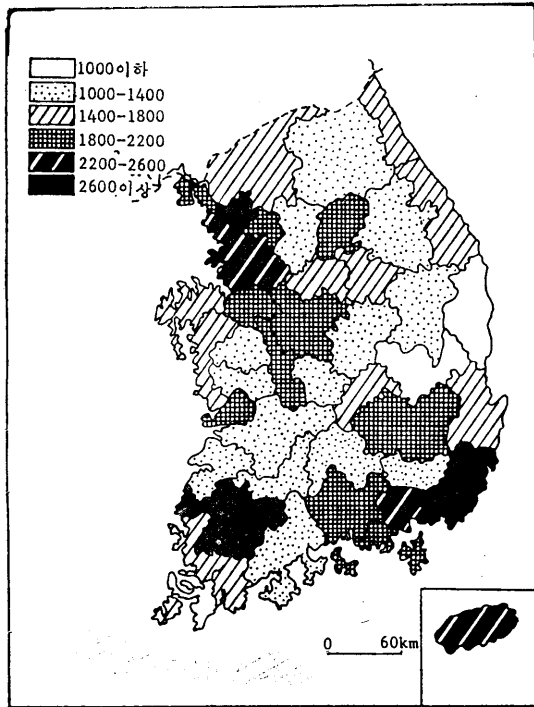


그림 2. 권역별 범죄비율

4. 都市化와 犯罪

(1) 도시화와 범죄

현대 사회의 특징은 도시화로 인한 人口의 都市集中 현상의 팽배이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 도시 특유의 사회 병리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범죄행위의 증대이다. 도시화에 따른 범죄 발생 요인은 첫째, 인구 밀집에 의한 범죄 행위의 양적·질적 증대, 둘째, 規模經濟의 발달로 생산, 판매, 소비과정에

서 각종 과실범의 증대, 세째, 교통의 발달로 인구의 이동이 증대되어 近隣關係가 弱화되고 사회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이에 따른 범죄유발가중, 네째, 가치관과 윤리의식과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행동의 일관성을 잃는 상태에서 反社會的 行動의 表出, 다섯째, 고도의 물질추구로 인한 범죄의 유혹 증대, 여섯째, 빈민지역의 형성으로 그 지역 구성원의 인적, 물적 조건이 저하되고 규범을 중시하지 않는 가치관이 팽배하여 주민의 범죄성이 조장된다.¹²⁾

도시화와 범죄 행위와의 관계를 보면 도시화가 낮은 단계에서 보다는 도시화가 높은 단계에서 범죄율이 비교적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도시화가 28%에 달하던 1960년대에는 범죄율이 1.646에 이르렀는데 도시화가 2배로 증가한 1980년대에는 범죄율이 2.120으로 증가하였다(표 2).

(2) 도시규모와 범죄

우리 나라에서 도시규모와 범죄자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y = 31.3 + 0.38x$$

$$s = 178.5, \quad \text{단 } x : \text{도시인구}$$

$$r = 0.84 \quad y : \text{범죄율}$$

$$R^2 = 0.71$$

표 2. 都市化와 犯罪

	도시화(%)	범죄발생건수	범죄율
1964	28	433,585	1.646
1970	43	330,470	1.141
1983	57	792,008	2.120

자료 : 1964년, 1983년 인구는 1960년 1980년 센서스 인구임.

12) 崔哲壽, 1984, 犯罪와 社會環境에 관한 考察,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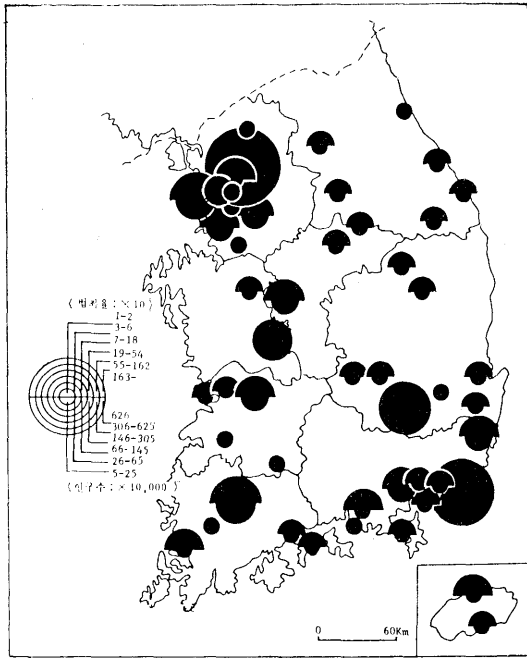


그림 3. 도시규모와 범죄(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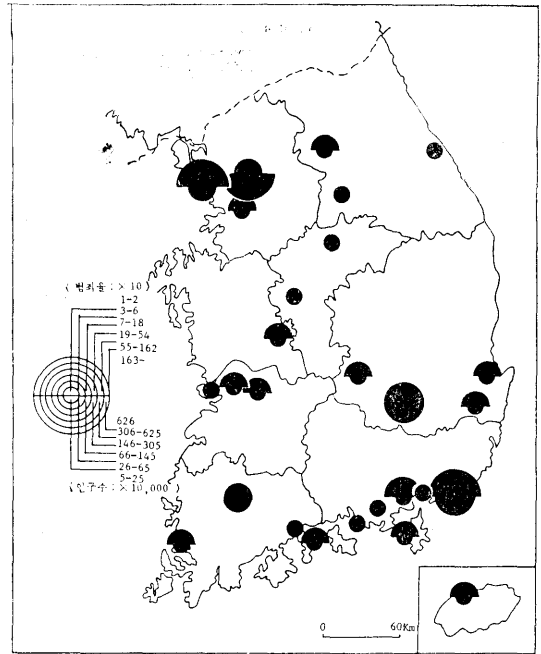


그림 5. 도시규모와 범죄(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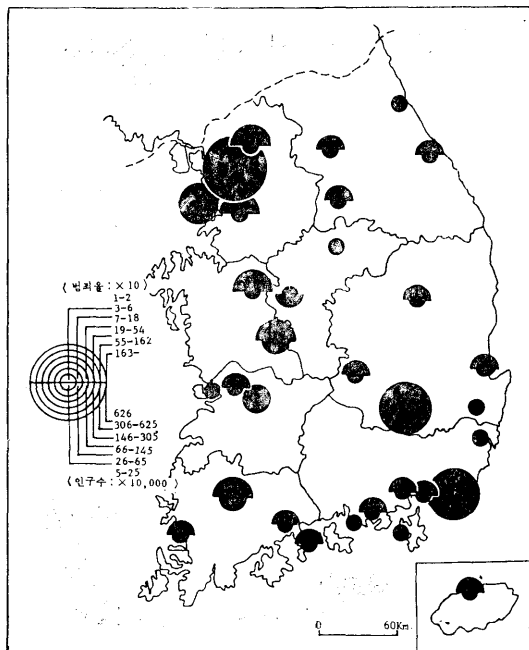


그림 4. 도시규모와 범죄(1972)

上記 관계식에서 보아도 양자간에는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규모별 범죄율을 時系列로 보면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발

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 당시 도시규모와 범죄율을 보면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이 타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자수가 많고 춘천, 진해와 같은 군사도시, 대전, 이리와 같은 교통중심지가 범죄발생건수가 높다. 또한 내륙도시 보다는 해안도시가 비교적 범죄발생건수가 높다(그림 3).

1972년의 범죄 발생의 특징을 보면 범죄가 前期에 비해 倍增되었으며, 특히 서울의 범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와 같이 군사도시, 항구도시, 이외에 工業化의 진전으로 工業도시의 범죄발생률이 높다(그림 4). 1983년에는 대도시는 물론 중위도시 이상의 규모에서도 범죄규모가 크게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태백산지역, 동남공업벨트지역 등에서 범죄발생건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제주, 충주, 전주, 강릉, 한려수도주변의 관광도시에서도 범죄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그림 5). 최근 나타나는 특징은 대도시에만 집중되었던 범죄가 중소도시로 파급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를 이룬 마산, 울산, 여수, 군산, 목포 등 항구도

시의 범죄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범죄률의 증가는 都市化 그 자체보다는 도시화에 따른 異質的 人口의 유입, 둘째 近代化에 따른 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전국이 一日生活圈이 되어 주로 대도시에만 국한되었던 범죄 현상이 지방도시에 까지 파급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시화와 관련된 犯罪의 특징은 대도시 중심으로 발생되었던 범죄가 주변도시로 확산되는 현상(centrifugal crime gradient pattern)이다.

5. 社會環境과 犯罪

범죄성에 관한 설명은 人口, 都市化 뿐만 아니라 地域의 경제, 사회, 문화 등 諸人文社會的 環境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범죄현상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섯 유형(즉, 총범죄, 강력법, 폭력법, 지능법) 범죄률과 범죄와 연관성을 지닌 사회적 변수, 경제적 변수, 문화 변수 등 모두 31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3개의 要因은 전체 변량의 61.4%를 설명하고 있다(표 2). 얻어진 요인과 부하량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요인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要因 I

요인 I은 전체 변량의 42.3%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인 I에 대해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는 변수는 범죄 변수중 총범죄률, 절도법, 폭력법, 지능법, 社會變數中 신문구독자수, TV 보유수, 정화보유수, 공연장관람자수, 전세이용자, 經濟變數中 제조업체 및 종업원수, 지방세 징수액, 경제활동인구, 에너지소모량, 그리고 離婚人口, 20~29세 인구, 大卒以上人口, 總人口 등의 人

표 2. 要因별 특징

factor	eigenvalue	說明力
I	13.12	42.3
II	3.41	11.0
III	2.52	8.1

표 3. 要因負荷量

變數 \ 要因		I	II	III
총	범죄	0.6379	0.6719	0.5122
강	력법	0.3831	0.8000	0.4751
절	도법	0.3517	0.7513	0.4686
폭	력법	0.2875	0.8054	0.7403
지	능법	0.5649	0.6614	0.2357
신	문구독자수	0.8908	0.2535	0.1241
T	V보유자수	0.6999	0.3188	0.2709
전	화기보유수	0.6182	0.2844	0.2779
생	활보호대상자	-0.6760	0.2525	0.5216
사	회복지시설이용지수	-0.3736	0.3501	0.4241
사	회복지시설수	-0.4886	0.5041	0.1791
경	찰공무원수	-0.5425	0.4609	0.1682
공	연장수용인원	0.2605	0.1597	0.5479
공	연장관람인원	0.8003	0.2783	0.2525
공	연장수	0.4212	0.4757	0.1431
전	세이용자수	0.8149	0.3159	0.1179
농	산물수매량	-0.5642	0.1134	0.5039
제	조업체종업원수	0.7375	0.7951	0.2528
제	조업체수	0.8358	0.7871	0.3675
지	방세징수액	0.8930	0.2532	0.4927
경	제활동인구	0.8559	0.8231	0.3762
에	너지소모량	0.8795	0.1134	0.4257
남	성인구	0.2783	0.1597	0.9049
60	세이상인구	-0.7261	0.3130	0.4936
결	혼인구	0.1422	0.5366	0.4853
이	혼인구	0.2584	0.3208	0.8245
20~29	세인구	0.8264	0.4002	0.4120
중	졸이하인구	0.1579	0.4315	0.1161
대	졸이상인구	0.7955	0.6514	0.7415
성	인비	0.2614	0.1242	0.9317
총	인구	0.7315	0.5385	0.4275

口變數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농산물수매량, 60세 이상 인구등 범죄성을 감소시키는 변수와 강한 역상관관계를 示顯하고 있다. <그림 6>은 요인 I에 대한 요인 점수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가장 높은 요인 점수를 나타내는 지역은 서울권, 인천권, 성남권, 수원권, 부산권, 울산권, 마산권, 광주권 등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들이다.

서울과 부산은 大都市經濟利益을 기반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고도의 産業化와 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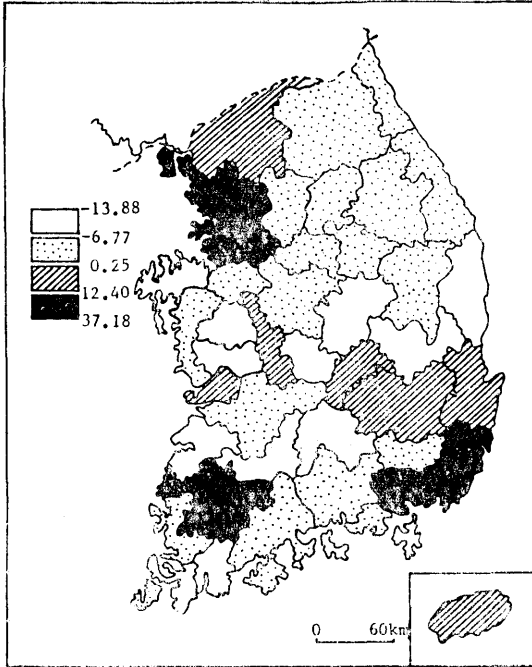


그림 6. 요인 I 과 요인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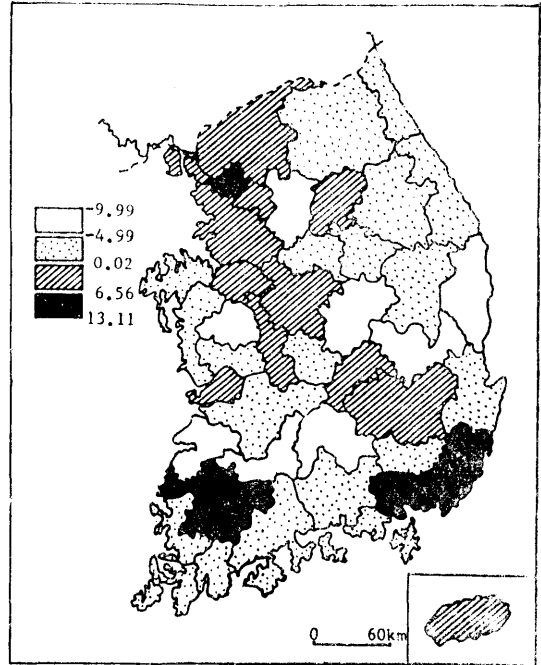


그림 7. 요인 II 와 요인점수

市化를 이루어 왔고, 그 주변지역은 中心 大都市의 영향권內에 속해 있기 때문에 大都市와 유사한 都市的 生活方式를 지니고 있어 범죄에 대한 環境的 기회가 높은 地域이다.

한편 蔚山圈, 群山圈 등 신흥개발도시 地域에서 犯罪率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개발계획의 실행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社會의 均衡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개발지역의 인적, 물적 구성의 마찰 및 모순에 의해서 반사회적 행위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영덕권, 의성권 상주권, 영동권, 서산권, 공주권, 강경권, 정주권, 남원권, 해남권, 장흥권, 거창권 등이 낮은 범인성 요인을 가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2) 要因 II

요인 II는 전체변량의 11.0%를 차지하며 요인 II는 범죄유형변수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냈다. 이 변수들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낸 것은 요인 I 과 유사하나 범죄에 대한 환경적인 기회보다는 범죄를 자체와 관련이 큰 요인이다. 그리고 요인 I 과 다른 점은 요인 I 은 大都市 집중

형이나 요인 II는 중소도시에 분산되어 있다. 높은 요인 점수를 나타낸 지역은 犯罪多發地域인 대도시 이외에 울산권, 마산권, 성남권, 수원권, 천안권, 청주권, 군산권, 김천권, 제주권 등 중소도시권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地域圈이 낮은 범죄률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7).

(3) 要因 III

요인 III은 전체변량의 8.11%만 설명해 전체 범죄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독특한 특징을 시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男性 人口 比率이 높은 지역이 범죄성이 높은 지역이다. 현실적으로 남성에 의한 범죄가 여성의 것보다 높는데 특히 재산범죄는 여성의 7배가 된다.

요인 III에 대해 높은 要因點數를 나타낸 지역은 강릉권, 영월권, 제천권, 등인데 이들 지역은 남성의 性比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다. 이 밖에 의정부권, 성남권, 여주권, 충주권, 속초권, 원주권, 청주권, 영동권, 대전권, 서산권, 홍천권, 공주권, 경주권, 울산권 등도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서울권, 부산

13) 金箕斗·沈愚燮, 1980,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범죄 현상 변화의 분석과 그 대책," 법학, 제43집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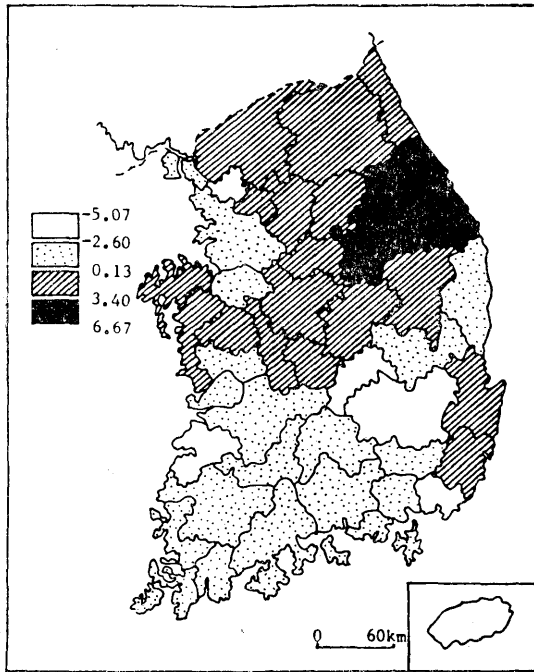


그림 8. 요인 III과 요인점수

권, 대구권, 광주권 등 대도시권은 가장 낮은 요인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8).

6. 結 論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犯罪分布를 人口와 범죄, 都市化와 犯罪 환경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結論은 다음과 같다.

犯罪行爲에 대한 都市化의 영향은 犯罪率이 都市의 規模에 따라 다양한데 大都市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犯罪率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人口가 密集된 서울, 釜山, 光州 등 大都市에서 犯罪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中小都市에서도 犯罪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都市規模와 犯罪規模를 時系列的으로 살펴보면 1960年 以後, 既存大都市들은 犯罪發生이 안정되고 있는 반면 울산, 군산 등의 신흥개발도시에서 犯罪率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大都市 주변지역에서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都市人口의 교외지역으로의 移動과 都市化의 확산 과정에 기인한다.

범죄와 환경변수를 要因分析한 결과 要因 I이 犯罪性和 연관된 환경적인 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要因 I을 요인점수에 따라 지역을 분류한 결과 高度의 都市化와 産業化를 이룬 大都市 지역, 즉 서울圈, 釜山圈, 光州圈이 犯罪에 대한 환경적 기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都市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水原圈, 城南圈, 仁川圈, 馬山圈 등도 要因 I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地域들은 犯罪多發地域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諸 環境的 要因이 적은 곳은 市보다 農村지역인데 대표적인 지역으로 盈德圈, 義城圈, 尙州圈, 永同圈, 瑞山圈, 公州圈, 江景圈, 井州圈, 南原圈, 海南圈, 長興圈, 居昌圈 등이다. 농촌지역이 대부분 낮은 범죄환경기회요인을 갖는 것은 特히 農村地域 특유의 낮은 非行性行爲 이외에 낮은 경제환경요인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要因 II는 강력, 절도, 폭력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요인점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 이외에 울산, 마산, 군산, 대구, 천안 그리고 수도권의 전도시가 이에 속한다. 요인 III은 남성 인구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요인점수가 높은 지역은 태백산 주변지역, 서산, 당진지역, 영일, 영덕지역 등이다.

Criminal Space in Korea

Summary;

Woun-Sik Choi*

Mi-ai Bae**

This attempt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criminal behaviours, to analyze the spatial patterns of crime rate with variation in population density, urbanisation rate, and social environment such as wealth, occupation, literacy and unemployment, and to study the regional distribution pattern of criminal behavior in Korea.

The study examined 31 variables of social environment and criminal behaviour of 45 judicial district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and the Judicial Off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crime rate is related to the population mobility, contingency of urbanisation and a decline in social intergration.

2.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rime rate and urbanisation, as the more the urbanisation proceeds, the more the crime rate increases. The crime rate varies with the population size, that is, the metropolises such

as Seoul, Pusan, and Kwangju have higher crime rates while small cities such as Youngil, Haenam, and Seosan have lower crime rates.

3. A band of high crime rate runs from metropolitan area to suburban area. Particularly, the inner and outer city regions have different crime rates. The inner city region has higher crime rate than the outer city region. The high crime rate in inner city account for higher rate of offenders residences, vulnerable built environment and other locational disadvantages.

4. Three factors are identified which explain 61% of total variation. Factor 1 is highly related to economic variables with high factor scores in the areas of Seoul, Pusan, and Kwangju. Factor 2 relates to demographic variables which show positive correlation in metropolitan area and suburban area. Factor 3 has characteristics of high correlation with masculine variables with high scores in the Youngil, Haenam, and Seosan areas.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321-329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Lecturer, Pusan Women's Junior College